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2010년 12월 13일(월) 소식지 제1호

# 등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발행처 |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전화 | (062)383-9061~2

팩스 | (062)383-9063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02-4 서연빌딩 2층



과거를 넘어 미래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 ‘(사)호남미래연대’ 창립기념대회 1천명 참석 ‘성황’

정용화 이사장 ‘정파를 초월한 공론의 장...대안제시’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정용화 전 대통령 비서관이 이끄는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가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호남미래연대는 11월 17일 광주 메리어트웨딩홀에서 1천명의 초청인사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 초청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용화 이사장과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채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 이정재 전 광주 교대 총장, 현고 스님 원각사 회주, 강대권 (주)장호 대표이사 등 광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호남미래연대는 정용화 전 청와대비서관이 중심이 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순수 민간 시민단체다.

창립 행사는 채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정용화 이사장의 창립보고와 환영사, 새날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의 ‘녹색성장시대의 호남권 발전전략’ 주제강연으로 진행됐다.

채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은 창립기념축사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나가자는 뜻에 동의, 고문직을 수락했다”며 “오늘 이 날이 호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통렬한 반성과 발전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용화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호남미래연대는 호남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의를 벗어나 함께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정파를 초월한 소통의 장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고 설립의 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새날학교 학생들은 축하공연 무대에서 중국가요 중창과 깜찍한 무용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 호남미래연대 창립선언문

호남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수준높은 문화의 산실이요, 호국과 민주화의 고장이지만 미래는 불안하게 다가오고 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젊은이보다 나이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호남인임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숨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너른 들판, 아름다운 풍광, 따뜻한 인심, 맛있는 음식, 멋들어진 풍류, 함께하는 대동의 전통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호남의 잠재력을 살리고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두운 기억을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한다. 뿌리깊은 차별의식과 소외의식에서 벗어나고, 지역주의의 희생자이자 이용자로 덧칠된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 남의 탓 이전에 자신의 책임감으로 오늘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의에 맞서는 義의 고장, 전통문화를 간직한 藝의 고장, 맛있는 음식 味의 고장,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美의 고장,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는 學의 고장이라는 잠재력을 살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호남미래연대는 과거보다는 미래, 지역보다는 세계를 향하는 열린 마음으로 호남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호남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의 경계, 시간의 경계를 넘어 융복합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한다.

지역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소외된 곳이 없이 고루 발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민통합을 선도하고 민족통일에 앞장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호남미래연대는 비정치적인 시민사회단체이지만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세력은 그 누구든 단호히 반대하며 저항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 1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0년 8월 20일 본 단체를 설립하고 오늘 그 창립총회를 갖는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2010년 9월 25일 (사)호남미래연대 발기인

## “광주공항 문제 함께 풀어보자”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자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호남미래연대가 주최하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 및 광주전남 상생방안’ 토론회가 12월1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와 공군본부 실무책임자,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등을 대표한 인사들이 참석해 광주, 무안공항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7일 오후 2시 DJ센터 시·도 상생방안토론회  
국토부 공군본부 실무자 참석 관심 고조

오수열 조선대 교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국토부와 공군본부의 공항관련 실무책임자가 정책을 설명한 뒤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토론을 펼친다.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을 상대로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특히 토론회에 공군본부 전력기획처 실무자가 참석하기로 해 전투비행장 및 공군 탄약고 이전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공군공항과 민간공항 문제를 놓고 공군본부와 국토부 책임자급이 광주공항관련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CNBLUE FT아일랜드 시크릿 씨스타 디셈버...광주에 온다

## ‘사랑을 나눠요’ 새날학교 돕기 자선콘서트

(사)호남미래연대 · 기아대책기구 주최

FT아일랜드, CNBLUE 등 국내 톱가수들이 새날학교를 돕기 위해 새해 벽두 광주를 찾는다.

(사)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와 한국기아대책기구(회장 정정섭)는 2011년 1월3일 오후 6시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새날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2시간동안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새날학교 명예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정용화 이사장이 정규학교 인가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날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1월3일 오후 6시 염주체육관 공연 수익금 전액 기부 나눔서약식 · 후원약정식 이어 현장 모금활동도 전개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연기자 이하늬(기아대책홍보대사)씨 사회로 진행될 콘서트에서는 FT아일랜드와 CNBLUE를 비롯 씨스타, 시크릿, 디셈버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은 새날학교 지원 기금을 위해 출연료를 전액을 기증기로 했다.

주최측인 호남미래연대와 기아대책기구는 티켓판매금, 후원금 등 수익금에서 부대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새날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콘서트에서는 새날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학생들과 출연진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도 마련돼 뜻 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정용화 이사장이 주최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 뒤 강운태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의 축사(예상), 가수 공연, 새날학교 공연, 합동 공연 순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기금전달식과 나눔서약식이 이어진다. 나눔서약식은 나눔을 실천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는 대변자 역할을 서약하는 것으로 출연가수 전체와 새날학교 후원 기업,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연은 후원사인 KBC광주방송이 녹화 방송하며, 현장 모금활동 등 새날학교 돕기 캠페인도 전개된다.

### 새날학교는?

새날학교는 이천영 교장(목사)이 중심이 돼 2007년 1월 개교한 통합형 다문화 대안 학교다.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중이며 현재 16개국 100여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재학중에 있다. 재학생 대부분이 중도입국 자녀들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봉사 중심의 38명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정규학교가 아닌 관계로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후원금 등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증가로 새날학교문을 두드리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학교시설 및 운영비 부족으로 더 이상 입학이 힘든 상황이다. 내년도 정식학교 개교가 무산된다면 사회적 일자리 기업 지정까지 탈락 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용화 이사장

### “지역발전 사회통합 새로운 모델 제시”

▲호남미래연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공헌, 사회통합 운동을 목표로 한 비정치적인 순수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지역민들의 사고와 의식을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확장시켜나가는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하게 된 건가요.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및 정파를 초월해서 접근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원로급 인사, 지도급 인사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경제, 문화, 종교계, 교육계, 여성계 등에서 지역의 리더급 인사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님,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님,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님, 유희열 광주경총회장님, 채일

병 광주발전연구원장님, 화가이신 황영성 전 조선대 부총장님, 김행자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이상복 동명교회 담임목사님, 원각사 회주이신 현고 스님, 이정택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장님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특히 지역발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광주공항 이전문제, 광주은행의 향토은행화,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 내에 연구소를 운영해 지역발전엔 필요한 정책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 새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의 사회 정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 자리도 마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발전 전략 모색은 어느 한 사람, 리더들만으로는 힘듭니다. 지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호남미래연대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나 광주은행



향토은행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 가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집약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지역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으로서 의식 함양을 위한 유명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시민공개강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소 생각한 호남지역 발전방안은.

국내적으로 광주전남은 한반도의 서해안축과 남해안축의 성장세 상호접점으로 복합성장세력의 입지를 지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G2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상해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하게 축적된 문화유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여건을 잘 활용해 관광산업이나 해양바이오산업, 첨단농수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같은 문화산업 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것입니다.

▲이사장으로서 각오를 말씀해주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발전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호남미래연대에 바란다

# 지역사회 따뜻한 등불이 되길...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활동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기존 단체와는 차별화된 활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귀를 크게 열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행동에 옮겨 꿈과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한양승 (밝은사회 빛고을클럽 회장)

고문진 구성에서 보듯 정파를 초월한 시민단체라는 점이 크게 와 닿습니다. 호남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활동한다면 호남권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송덕만 (뉴스웨이 호남본부장)

정용화 이사장의 탁월한 식견과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이념적 지역주의를 탈피한 호남 소통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호남미래연대가 광주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신남수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광주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고문진에 포진해 신뢰감이 생깁니다. 외형만이 아닌 내용적으로도 믿음을 주는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어른과 젊은이간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최승아 (주부 · 광주 광산구 장덕동)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실천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지역사회에 따뜻한 등불같은 법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임철성 (자영업 · 광주 서구 치평동)

정용화 이사장님의 이력으로 봤을 때, 호남미래연대의 발족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지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호남의 시대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창립기념식 화보



### 하나라도 더 듣자

창립기념식장에 참석한 스님 한 분이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녹색성장 시대의 호남권 발전전략' 강의를 진지한 자세로 듣고 있다.



### 빈자리가 없어요

(사)호남미래연대 창립기념 초청강연회가 열린 메리어트웨딩홀에는 1천명이 찾아 큰 관심을 보였다.



### 깜찍 발랄 댄스

새날학교 초등부 학생들이 깜찍하면서도 발랄한 축하공연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꽃밭이 따로 없네

(사)호남미래연대 창립을 축하하는 화환이 행사장은 물론 안내 데스크까지 길게 늘어서 있다.



### 회원소식

● **김희순** 회원은 11월10일 광주셋별 산악회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셋별산악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마다 정기 산행을 한다. (문의) 010-3604-1158

● **김권도**(충장라이온스클럽 총무) 회원은 12월9일 회원들과 함께 새날 학교를 방문, 회원 성금으로 마련한 프로젝션TV45인치 5대와 운동복 12벌, 배드민턴 운동기구, 배구공 등을 전달했다.

● **한양승** 회원은 11월26일 밝은사회 빛고을클럽 제18대 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밝은사회 빛고을클럽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민간단체다.

● **오경복** 회원(외국인근로자 선교회 이사장)은 12월19일 오후 5시 하남은 광고회에서 무지개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초청 성탄 축하예배를 갖는다.

● **최혜미** 회원은 12월3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신입생선발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 **이순옥**(생활체육광주불링연합회장) 회원은 12월4일 광주 씨티스포츠센터에서 전국실버불링대회를 개최했다.

● **김명식** 회원(한국석유공사 이사)은 12월 13일과 23일 한국석유공사 이사회에 참석해 현안을 심의한다.

회원 동정을 게재합니다. 축하할 일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그림, 시, 수필, 사진, 등 작품도 보내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전화 062-383-9061~2, 팩스 062-383-9063

### 회원가입 및 후원안내

####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우리고장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소통과 통합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호남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사회통합·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 후원신청 및 회비 정기납부 안내

◆ 회원 여러분의 회비 및 후원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호남미래연대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다문화가정돕기 저소득 자녀 지원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예금주: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농협 : 355-2626-2727-03

광주은행 : 112-107-428964

신한은행 : 100-026-752380

하나은행 : 724-910007-69505

국민은행 : 777101-01-277571

### '등대' 발간 축하 채일병(호남미래연대 고문·광주발전연구원장)



## 통합과 소통이 이뤄지는 공론의 장

2010년 11월 17일 창립기념대회를 가진 (사)호남미래연대의 소식지 '등대' 발간을 축하하며 수고하신 연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남은 넓고 비옥한 평야와 수많은 섬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농수산물에 있으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축복의 땅입니다.

또한 호남은 전통적으로 예향·의향·미향이고, 지리산·무등산·월출산의 고장이며 금강·영산강·섬진강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와 저조한 생산기반으로 인하여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더욱이 근래에 들어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고급인력의 유출 등으로 호남의 장래는 극히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호남미래연대는 호남이 처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우리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연대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각종 연구개발, 공개강좌와 토론, 소외계층보호와 봉사활동, 통합과 소통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소식지는 '호남은 고립된 섬'이라는 아픈 평가를 겸허히 받아 들여 우리 호남이 '달린 호남'에서 '열린 호남' '따뜻한 내 고향'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식지는 출향한 호남인들은 물론이고 나아가 호남 이외의 지역이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호남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풀리고 서로 화합하게 되면 국민통합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남미래연대 화이팅!



### 호남미래연대 창립을 화환으로 축하해주신 분들입니다.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명박(대통령) △진성호(국회의원) △신남섭(신신 주택건설(주) 대표) △윤성석(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장(△윤민해(메리어트 웨딩홀 대표) △한동원(우경엔지니어링 대표) △박종일(주)BK시스템 대표이사) △차중석(제이씨현시스템(주) 대표이사) △공훈의(주)소설뉴스 대표이사) △박송봉(새대한기자협회 목포지회장) △최석중(주)미래세움 대표이사) △황운기(주)효광 대표이사) △윤명희(한국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유희열(주)세화아엠씨 회장) △박용섭(용사모 상임대표) △신정후(광주서구장애인협회장) △김문환(주)대한정밀 대표) △정윤남(주)거산에스엔씨 대표이사) △김광만(전 한 나라당 광주시당위원장)
- △전호중(조선대학교 총장) △오장원(광주여자대학교 총장) △송기진(광주은행장) △정규남(광산대학교 총장) △김일태(영암군수) △양희부(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강창기(대한토지신탁 감사실장) △노영대(광주변호사회 회장) △김창준(광주생활체육회장) △최용훈(광주검도회장) △주영순(목포 상공회의소장) △조홍식(BK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장) △김윤세(제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동광주로타리클럽 회원일동 △나용수(국제라이온스355-B1지구 VIP클럽 회

## 광주공항(민항/군항)이전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중앙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시민대표가 참석하는 광주공항이전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에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최내용

**주 제** 광주공항(민항/군항) 이전 문제와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

**일 시** 2010. 12. 17일(금) 오후 2~4시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 치평동)

**주 최** (사)호남미래연대

#### 토론회 참석대상

**사 회** 오수열 교수(조선대학교)

**토론자** 황현주 과장(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류일영 부이사관(공군본부 전력기획처)

박남언 교통정책과장(광주시 시민교통국)

관계자(예정) (전남발전연구원)

조남건 센터장(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전략센터))

임형철 대표(광주전투비행장 이전대책위)